

[5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경배 찬양

아무 것도 두려워 말라

선교

[김민호 선교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배경

1. 대통령이 흠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를 하도록
2. 혼합주의, 이단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3. 매일 주님과 더욱 친밀함 누리도록
4. 다하라 형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2023 오렌지 투어



우.목.소

우리 목장을 소개합니다 / 목장 사진 컨테스트 안내

1. 목장 모임에서 목자와 목원들이 상의하여, 재미 / 의미 / 감동 / 참신함 등등이 담긴 사진을 찍을 계획을 합니다.
2. 계획에 따라 사진을 찍고, 간단한 목장 소개와 사진의 의도, 의미 등을 준비합니다. 사진 제출은 매 주 목요일 낮 12에 마감합니다. 5월 첫주는 우.목소. 회의 시간으로 보내주시고, 첫번째 사진 마감은 5월 11일 목요일 낮 12시입니다.
3. 목자는 준비된 사진과 내용들을, 마을장에게 전달하고, 마을장은 김성연 목사와 각 지역장에게 함께 전달합니다. (김성연 목사: 010-2527-5063)
ex) 더은혜지역 10-5 목장 사진과 내용을 목자이신 최혁종 집사님이 마을장이신 조성봉 집사님께 전달해주시고, 조성봉 집사님께서 김성연 목사와 지역장이신 김종설 장로에게 함께 전달해주세요.
4. 전달된 사진과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성도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후보에 규알코드로 안내됩니다.
5.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목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외식 상품권은 지정된 식당에서만 사용 가능)
6. 5월 한 달간 매 주 진행이 되며, 첫번째 시상은 5월 14일 주일이고, 마지막 시상은 6월 4일 주일입니다.

아굽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민수기 24장 5절)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질문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한 번씩은 했던 질문일 것입니다. 특히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때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묻게 됩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됨을 말씀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10:29]

민수기 22-24장의 발람의 축복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당시 가장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초청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주술사)이 발락(모압 왕)의 초청에 응해 나설 때 길을 막으셨고,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함께 생각해봅시다.

1_포기하지 않는 악한 발락을 통해 (23:27-30)

발락은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그는 발람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저주를 요청합니다. 두 번이나 실패하였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발락은 발람을 부른 이유를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27절)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두 번의 실패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발락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신들을 동원해서라도 그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습니다.

[나눔] 오늘 나를 힘겹게 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니누어 봅니다. (삶의 상황,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2_이방인 주술사 발람을 통해(24:1-9)

발람은 세 번째 예언의 자리에 요청받았을 때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 내가 어찌 저주하라
두번째 =>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세번째 => 하나님 말씀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발람은 세 번째 상황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축복하려 합니다. 발람이 더 이상 점술을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합니다.(2절)

세 번째 반응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므로 자신의 영적인 눈이 열려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주술사를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향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질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의 말 혹은 반응을 통해)

3_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22-29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발람의 예언을 통해 모압왕 발락 뿐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존재를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12:3)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된 곳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걸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질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얼마나 알고, 누리고 있나요?

[도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서로 격려합니다.